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박 진 애 서기관 (02-2100-2831) 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2833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성 미 라 사무관 (02-2100-2992)
	IBK 자산운용 운용총괄본부장 신 동 걸(02-727-8843)		IBK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김 보 형(02-727-8833)

제 목 :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- 정부는 금일(4.2) 개최된 「금융상황 점검회의」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,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,
 - 내부 유보금,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,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
 - 시장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,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금리, 보증료율,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.
- 미국 FRB도 기업어음매입기구(CPFF) 운영과 관련하여 발행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금리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※ 美 Fed, '20.3.17., 「CPFF 2020: Program Terms and Conditions」

Pricing

Pricing will be based on the current 3-month overnight index swap(OIS) rate plus 200 basis points.

At the time of its registration to use the CPFF, each issuer must pay a facility fee equal to 10 basis points of the maximum amount of its commercial paper the SPV may own.

- 채권시장안정펀드 역시 앞서 언급한 조건 하에,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앞서 언급한 조건 하에서도 채권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, 규모·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따라서,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전채 매입을 보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현재 금리 등 매입조건을 협의 중입니다.
- 앞으로도 여전채 만기도래 및 차환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,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